

##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 최 레오니드(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부회장)

《평양이 정말 마음에 든다. 평양에는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건물이 많고 또 멋진 집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산다고 하니 얼마나 믿기 어려운 현실인가. 이번 조국방문을 한생 있을수 없을것 같다. 평양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하고 멋진 도시이다.》

◇ 박 왈레리(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부회장)

《퍼슈텐트에는 평양처럼 높은 건물이 없다. 평양에는 멋진 건물들이 너무도 많다.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 더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 최명철(로씨아대권도련맹 고문)

《문수물놀이장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있는 행복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비평하고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이번 방문기회에 조선을 똑바로 알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것이다.》

###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소감

◇ 김철성(로씨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너무도 멋있고 황홀하여 눈이 막 부실 정도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처럼 훌륭한 야영소를 건설하는 나라는 오직 조국밖에 없다. 미래를 그토록 사랑하는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관에 정말 머리가 숙여진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더라면 공화국은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것이다.》

금강산의 경치가 참으로 장관이다. 누구든 금강산에와보지 못하면 일생 후회할것이다. 유럽사람들은 빠리를보고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한다. 우리는 오늘 금강산을보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결코 죽어서는 안된다. 우리앞에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이 있기때문이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조선민족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 박 왈레리(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부회장)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는 공화국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런 황홀한 소년단야영소가 이미전에 세워져있었다는것이 참으로 놀라고부럽다.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이 야영소만 보아도 조선의 미래가 휘황찬란하다는것을 잘알수 있다. 다시 아이로 될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이처럼 훌륭한 야영소를 떠나기가 아쉽다.》

◇ 김 에르네스트(민족문화자지회 모스크바지부장)

《조국방문의 날이 흐를수록 정말 잘 왔다는것을 더욱 느끼게 된다. 로씨아에서 살면서 조국이 이처럼 아름다운줄 몰랐다. 우리가 머물렀던 마진, 삼일포, 금강산, 해금강 할것없이 산천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넘기 다 나가는줄 알았다.》

◇ 박 발렌트(로씨아 연변강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세계 여러 나라의 명승지들을 다녀보았지만 금강산이 최고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산천경개는 없다.》

이 절경을 온 민족이 자유롭게 부감하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

◇ 허가이 알라(우수리스크민족문화자지회 부대표)

《나의 아버지가 그토록와보고싶어하던 조국에 오고보니 아버지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아버지는 8.15가되면 우리들에게 오늘은 조선이 해방된 날이라고 말해주면서 후세들이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조국에 왔는데 모두를 데리고와서 이처럼 훌륭한 조국을 보여주셨다.》

◇ 허가이 안드레이(로씨아건설회사 사장)

《이번에 조국에 와서 백두산에 올라가본것은 인생에서 큰 사변이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백두산에와서 조국의 넋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로씨야의 우수리스크와 올라지 보스토크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아직도 조선사람들을 숭배하고있다. 왜냐하면 조선사람들이 순박하고 근면하기때문이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갔었는데

데 조선에 온것처럼 마음이 즐겁지 못했다.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즐겁고 마치 고향에 온것처럼 기쁘다.》

◇ 박 루슬란(우즈베키스탄관광회사 사장)

《조국에 오기전까지 조선은 단긴 나라, 모든것을 숨기는 나라라고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있었다. 이번에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였는지 은근히 걱정도 많이 하였다. 실지 와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전혀 숨김이 없는 나라,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실은 의욕이 막 생긴다. 조국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

◇ 안향진(로씨아고려인통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긍지롭게 생각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는 재로씨야동포들



문수물놀이장을 참관하는 재로씨야동포들

## 조국소식

### 상원군에서 학생소년회관 새로 건설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상원군에서 학생소년회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설된 회관에는 성악, 기악, 컴퓨터소설, 다기능활동실을 비롯한 여러 소조실들과 식당, 한증칸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구색이 맞게 꾸려져있다.

주변 건물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아담하고 특색있는 조형미와 파괴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회관

### 가구제품, 일용품도 안전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산업미술창작단위들과 교육부문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 가구제작, 일용품생산단위의 도안가, 설계가, 로동자들이 내놓은 특색있

은 하루에 수백명의 학생소년들이 리용할수 있다.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학생소년회관을 일떠세울목표를 세우고 설계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당의 후대관이 잘 반영된 설계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자체 보장사업을 선행시켰다.

지난 3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단순에의 정신으로 수백명의 기초공작을 단 3일동안에 해제한 기세로 높이 럽체전의 방법으로 공사

속도를 부단히 높여왔다.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조명설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공사가 8월말까지 전부 끝났다.

군의 많은 근로자들도 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상원군에 청소년과외교양기지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군의 학생소년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었다.

### 시회 개막

호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용진배 각부총리가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재미동포들속에서

## 남조선집권자에 대한 분노 고조

9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속에서 남조선집권자에 대한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국제회의에 참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행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미동포들은 항의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동포들은 남조선집권자가 추석날에조차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청와대주변에서 통성을

벌리는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단죄하였다.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 《세월》호참사 등을 보면 남조선당국자가 과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그 뻔뻔스러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규탄하였다.

해외에 드나들것이 아니라 유가족들부터 먼저 만나라고 요구하였다.

집권자의 행각을 계기로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스를 비롯한 미국의 전지역에서 재미동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번 투쟁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투쟁을 지지하고 현 《정권》의 악랄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의 일부 전력과 남조선군의 려단급 부대로 편성된다고 한다. 이 련합사단은 조선반도 유사시 《북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WMD(대량살상무기)제거와 처리를 기본임무로 하고있다.

《북극변사태》나 북침전쟁을 전제로 하고있는 이런 련합사단의 창설은 미국의 남

미국은 싸드를 놓고 《방어용》이라느니,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

계 수립행동은 명백히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주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로서 온 겨레는 물론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놀음은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정세의 긴장격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해치게 된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에 추종하

최근 남조선의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각계층속에서 전 《정권》시기에 북남관계에 빗장을 질러놓은 대결조치들을 폐기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 높아가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북제안들은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공허하다.》, 《〈5.24조치〉해제로부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일은 〈5.24조치〉의 조건없는 해

제》라고 하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지속시키고있는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당국에 요구하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고위인물들속에서도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일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같은 인물들이 나서서 《〈5.24조치〉는 시효가 지난 정책》, 《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5.24조치〉에 대한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북남관계개선의 압초인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막을수 없는 민심의 지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전 《정권》시기인 2010년에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작해낸 《5.24조치》로 말하면 6.15통일시대에 북남사이에 진행되던 모든 협력과 교류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킨 악랄한 동족대결정책, 북남관계차단조치이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5.24조치》로 인해 북남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남조선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

지고 북남사이의 경제문화교류가 완전히 가로막히는 등 북남관계는 파국으로만 출몰

올랐다. 금강산관광문제도 마찬가지로 남조선의 금강산기업연합회가 밝힌바와 같이 지난 6년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남조선의 기업들이 천문학적액수의 피해를 입었으며 민족의 명산에 단 한번만이라도 와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과 같은 지난 《정권》시기의 대결 《유산》들을 과연 언제까지 그러안고있겠는가 남조선당국에 물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북정책》에서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운운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동족대결정책과 조치들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실패》니 뭐니 하고 떠드는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모순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다면 말로만 《실패》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북남사이에 이미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들을 적극 리행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민

## 미군은 제땅도 아닌 남조선에 왜 있는가

###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6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가 8월 3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남조선에 왜 미군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70년전인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출몰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다.

하다면 제땅도 아닌 남조선에 왜 미군이 있는것인가?

글은 《지배주의야망의 결과》, 《불법무도한 점령》등의 소재목을 달고 미군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조선반도의 남쪽을 비법적으로 강점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글은 《영구주둔을 노린 술책》이라는 소재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의 리승만과 퇴정부를 내세워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하려고 획책하였다.

1958년에 북조선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철수하였으나 남조선주둔미군은 제

속 증강되었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도 리행하지 않았다.

맹정시기 미국은 쏘련의 《위협》을 내걸면서 남조선주둔미군의 영구강점을 획책했었다.

그러나 맹정이 종식되고 쏘련이 해체된후 그러한 명분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북조선 위협설》을 요란하게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를 소란케 하는 《미싸일위협》, 《핵위협》이 그 실례들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해 모험적인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을 끊임없이 강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악화일로에로 몰아가고있는 리유의 하나도 거기에 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미국과의 북침전쟁소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을 겨냥한 대미군사적격락에 더욱 현안이 되고있는것은 남조선군부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꾀물만한 의향도 없으며 오로지 동족암살의 범

죄적인 속심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면서 돌아앉아서서외세와 아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것이야말로 결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는 외세의 바지가쟁이만 붙잡고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할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파국의 나락에로 떨어지게 될것이며 그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그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 외세와의 군사공조는 긴장격화의 길

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공화국을 기어이 힘으로 압살하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북침야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있으며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뿐아니라 호전광들은 주변나라들까지도 완강히 반대해나서고있는 미국의 싸드(THAAD,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주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로서 온 겨레는 물론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놀음은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정세의 긴장격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해치게 된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에 추종하

알려진바와 같이 년초에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내담화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부터 얼마전에 막을 내린 《울지 프리덤 가터인》합동군사연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더 이상 어찌지 못하고있고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에 추종하